

제목: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중·노년기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 : 친밀한 만남의 조절효과를 중심으로

오예나(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석사과정)
이규호(대구대학교 아동가정복지학과 조교수)

연구목적

<중·노년기>

연령증가에 따라 급격한 신체적, 정신적 감퇴를 경험하게 된다. 따라서 “어떻게 늙어가는 것이 건강한 노후생활에 도움이 될 것인가?” 는 중요한 문제로 인식되고 있다.

<인지기능의 중요성>

- 1) 인지기능이 상실되면 대인관계에 문제가 발생한다.
- 2) 인지기능의 저하는 심리적인 위축을 가져온다.
- 3) 인지기능의 저하로 우울을 경험할 수 있다.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 1)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려워지면 사회적 역할이 축소된다.
- 2) 건강악화는 상실감과 소외감, 무능감, 무기력함을 경험하게 한다.

<사회적관계-친밀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

- 1) 노년기 외로움이 커질수록 인지기능이 감소한다.
- 2) 친밀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가 적을 수록 고립감을 경험하게 한다.

<연구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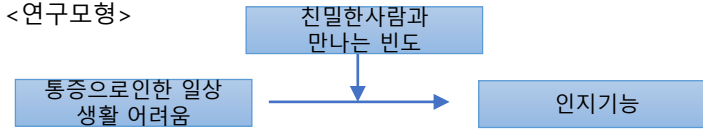
- 1) 본 연구에서는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인지 기능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 2) 노인들의 사회적관계, 특히 ‘친밀한 관계의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에 따라 인지기능저하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가설을 세웠다.

연구방법

<연구가설>

- 1) 중·노년기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은 인지기능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 2) 중·노년기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과 인지기능의 관계에서 친밀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는 조절효과가 있을 것이다.

<연구모형>



<연구대상>

한국고용정보원의 고령화연구패널조사(Korean Longitudinal Study of Ageing) 8차년도 자료를 활용함. 분석 대상은 주요변수인 인지기능에 응답한 5,418명을 대상으로 함

<측정도구>

종속변수 - 인지기능 (MMSE-K 사용)
독립변수 -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
조절변수 - 친밀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

<자료분석방법>

SPSS 27.0을 활용해 빈도분석, 기술통계분석 실시
SPSS Process Macro v4.0를 활용해 조절효과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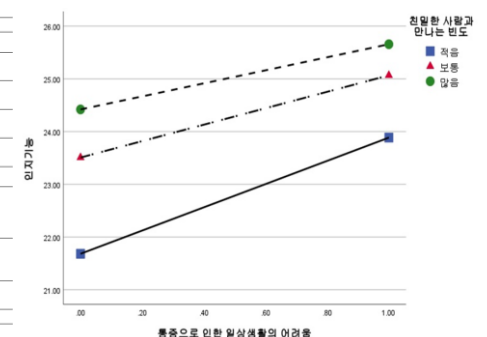
연구결과

1)인구사회학적특성

구분		빈도(%)	
변수		전체(N= 5,418)	
연령		M= 72.41(SD=8.89)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있음(0)	1,402명	25.9%
	없음(1)	2,329명	43.0%
	무응답	1,687명	31.1%
인지기능		M= 24.73(SD=5.47)	
가구총소득(log)		M= 7.59(SD=0.87)	
성별	남(0)	2,241명	41.4%
	여(1)	3,177명	58.6%
학력	초졸 이하	2,244명	41.4%
	중졸	966명	17.8%
	고졸	1,637명	30.2%
	대졸 이상	571명	10.5%
배우자	무배우자(0)	1,485명	27.4%
	유배우자(1)	3,933명	72.6%

2)조절효과검증

	B	SE	t
연령	-.229	.011	-21.700***
성별	-.639	.174	-3.670**
초졸 (대졸=0)	-2.788	.321	-8.687***
중졸 (대졸=0)	-1.010	.336	-3.003**
고졸 (대졸=0)	-.585	.316	-1.851
가구총소득	.229	.101	2.252*
유배우자	.669	.184	3.623**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 (A)	2.686	.343	7.826***
친밀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 (B)	.456	.039	11.688***
상호작용항 A X B	-.161	.054	-2.991**
R ²	.385		
F	232.521***		



- 1) 회귀분석결과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의 어려움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유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B = 2.686, p < .001$).
- 2) 친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의 상호작용항 ($B = -.161, p < .01$)의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여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은 친한 사람과 만나는 빈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논의 및 결론

1. 기존의 연구들은 성별이나 신체적, 경제적 상태나 우울 등의 정서적 요인들을 주로 살펴 봄. 그러나 자신의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인지기능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흡함.
2. 본 연구는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인지기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친한 사람과의 만남 빈도의 상호작용을 통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력을 검증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짐
3. 본 연구에서는 통증으로 인한 일상생활 어려움이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의 영향력에 대해서 살펴봄.
4. 통증으로 인해 일상생활이 어렵다고 하더라도 사회적관계 중에서 친한 사람들과 만나는 빈도에 따라 인지기능에 미치는 영향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친한 사람들과 자주 만날 수 있고, 자신의 신체건강에 대한 긍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정책과 프로그램을 제안함.

Key words: 중·노년기 인지기능, 통증, 친밀한 만남